

# 상호문화적 관계망 구축의 실험

## : 이주민, 선주민들이 함께만드는 우리 마을

인터퓨즈 [박서연, 김동현, 엄민아, 남성민, 성로제비]

### 서론

한국의 이주민 인구는 OECD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가는 데에 유의미하게 보는 비율인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고, 몇몇 지자체 단위의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의 10%를 훌쩍 넘었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이주민/난민과 지역사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2년간 숲과나눔의 지원으로 활동을 진행해왔다. 본 프로젝트팀 인터퓨즈는 한국인과 비한국 인간의 관계가 내부인-외부인(인사이드 - 아웃사이드), 혹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환원, 축소되는 경향에서 새로운 관계 및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한국인과 이주민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 민족, 종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 간의 소통 및 관계 구축에 대한 고민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임명을 상호적, 개입적, 소통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인터(inter)와 난민, 쉼터의 의미를 가지는 레퓨지(refuge)의 합성어로 인터퓨즈라 짓고, 활동을 시작했다.

인터퓨즈 활동의 첫해에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민과 이주민간의 접촉, 만남, 관계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슬람 사원이 위치해있고, 다양한 이주배경의 거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 이태원, 물자의 수출입과 관련한 산업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국내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의 거주지 및 생활근거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인천 송도와 부평, 다문화 도시 및 상호문화 도시 지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 및 생활하는 공간이며, 지자체의 역할과 추진해 온 사업 내용이 다른 많은 도시들의 모델이 되기도 한 안산시의 세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들과 관계 맺기를 시도했고, 그들과의 1년여에 걸친 관계형성의 결과, 그동안 접근한 이주민-선주민의 일방적인 방식의 소통을 넘어 이주민들의 스토리를 새로운 유통 방식과 새로운 재현방식으로 생산했다.

두 번째 해인 2024년에는 관계를 맺은 이들과 더욱 넓고 깊은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좀더 확장적인 상호 실천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인터퓨즈와 이주민 개인 혹은 소그룹과의 관계에서 더욱 확장된 지역 이주민-선주민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해외 네트워크 개발, 지역 단체 및 기관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등 그 성과가 매우 괄목할만했다.

### 본론

#### 1) 연구방법 및 대상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민과 이주민간의 관계망 혹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과 새로운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연구팀은 1년차에 이러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잘 구현될 수 있는 커뮤니티와 개인들을 만나고, 이주민들의 공간이라 불릴 수 있는 지역들을 방문했

다. 1차년도 방문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중 서울 이태원, 인천, 안산시였고, 그곳에서 약 1년여간 이주민 개인 및 커뮤니티들과 관계를 이어갔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잇고, 이주민들과 선주민들간의 교류, 소통, 그리고 건강한 지역 사회의 형성이라는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을 시작했다.

연구의 방법은 어떤 경향이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소통과 관계 방식의 발굴이라는 주제 탐색적인 연구목표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질적 연구방법을 취하였고, 주로 참여관찰, 각 2-3시간 정도의 심층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인터뷰즈와의 관계의 지속, 상호문화워크숍의 기획과 실행,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 모두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2차년도의 프로젝트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그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주제를 발굴하여 그것을 실천적으로 지역에서 수행해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문화워크숍이라는 형태로 대중에게도 열린 행사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1) 1차년도 이주민 개인, 커뮤니티와 관계 지속 및 새로운 관계 발굴

1차년도에 관계를 맺고 이어나간 커뮤니티들은 크게 세 그룹 정도인데, 그 그룹들을 나열하자면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 여성들, 안산시에 정착한 아프리카 난민 여성 커뮤니티,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및 그 일대를 중심으로 정착한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커뮤니티들이다. 2차년도에는 이들 중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자, 한국의 제1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지역에 좀더 집중하기로 하였다.

2차년도에 관계를 이어간 커뮤니티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1. 인터뷰즈의 2차년도 핵심 커뮤니티>

	지역	개인 및 커뮤니티	비고
1	인천 송도	아랍 여성들	
2	안산시	아프리카 난민 여성 커뮤니티	약 20-30여명의 커뮤니티, 커뮤니티 멤버들 일부와 재단재봉워크숍 개최
3	안산시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 커뮤니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이주민들의 생활 거점에서 참여관찰, 관계맺기
		한양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6명	포커스 그룹 인터뷰 2차례, 대중 상호문화워크숍 공동 기획 및 개최

(2)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 참여관찰, 그리고 청년들 및 귀환 이주민들(return immigrants)과의 심층인터뷰

안산지역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유학생들과,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을 만나며, 더욱 현지에서의 변화, 이주를 추동하는 다양한 요소들, 젊은이들의 비전과 열망 등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이 느껴졌다. 이에 김동현과 박서연이 함께 2~3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그리고 마르길란 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으로의 이주경험이 있는 이들과, 우즈베키스탄 국내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만났다. 이러한 만남에는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도움이 컸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로 짧은 기간동안 많은 접촉과 대화, 교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들과의 심층 면접과 참여관찰의 기록은 모두 연구자들의 연구 노트와 영상으로 기록되었고, 이후 pdf형태의 대화집과 편집된 다큐 영상으로 남겨 관계 기관 및 개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표2.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 지역과 연구 참여자들>

	지역	개인 및 커뮤니티	비고
1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타쉬켄트 웨스터 대학재학 대학생들 10여명	포커스 그룹 인터뷰 (6명)
		타쉬켄트 교육 비즈니스계 관계자들 (한국과 연계한 대학 설립)	심층 인터뷰
		귀환 이주민 2인	심층 인터뷰
2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귀환 이주민 3인	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3	우즈베키스탄 마르길란	마르길란 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 대학생들	포커스 그룹 인터뷰 (8명)
		지역 결혼식 참여	참여관찰

2) 결과물 산출의 방법 : 2차례 상호문화워크숍 개최

(1) 아프리카 난민 여성들과의 재단재봉 워크숍 (총 4회, 30여명 참여)

먼저, 아프리카 난민 여성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해 전문 디자이너 선생님을 섭외하여 재단재봉 워크숍을 4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열정적이고 뜨거웠다. 여성 공동체의 멤버들이 매회 4인 이상 참여하였고, 관심있는 지역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어 작업을 하는 동시에 상호문화 교류의 장소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이들의 작업은 안산시에서 11월 16일에 있을 공동체 행사에서 그 결과물을 선보이고, 패션

소로 이어질 예정에 있다. 본 행사를 통하여 커뮤니티 내적으로는 공동체성을 다지고, 외적으로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커뮤니티와 다른 그룹의 이주민, 지역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생산물을 향유할 수 있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 (총 40여명 참여)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조사 및 참여관찰, 그리고 심층 면접과 함께 한국에서 만난 우즈벡 유학생들 6명과 함께 총 2차례에 걸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고, 이어 상호문화 워크숍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여 청년들의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교류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상호문화워크숍에는 총 40여명의 안산지역 단체, 개인 및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이주민들의 국적도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중국, 러시아, 타이완, 타지키스탄으로 다양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우즈벡 사람들의 포용력, 환대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서의 일상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즈벡 청년들의 삶의 기획과 열망 등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양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이주 청년들로서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청년들이 준비한 주제로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빠른 변화와 정보의 유통, 외국 경험 및 유학에 대한 열망과 현실, 코리아 드림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지에서의 한국 이주로의 열기와 그 배경, 두 국가에서의 청년들의 대중문화 향유와 결혼 및 진로 등의 기획, 한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졸업했을 때의 취업과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 개별화되고 다소 배타적인 한국 청년 문화와의 어울림 등의 주제들이 포함되었고, 청년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행사 참여자들의 테이블별 대화와 네트워크의 매개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게도,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되었음을 이후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결론

본 현장 중심적 연구 프로젝트는 한국의 몇몇 지역에서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이 단지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정보의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일방적인 관계만으로 환원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스토리들이 만나 상호작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개인적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가 구축되는 모습을 그리며 시작되었다. 1차년도의 작업을 통해, 인터퓨즈는 지역, 관계성, 이주민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그를 기반으로 2차년도에는 더욱 진화된 형태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새로운 플랫폼과 접근 방식으로 확장시켰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만난 연인원만 200여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몇 차례에 걸친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 과정으로 유학생-지역이주민-유관 기관-인터퓨즈로 이루어진 확장된 팀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한양대 재학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인터퓨즈팀과 함께 상호문화 워크숍 공동 기획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한국뿐만 아니라 본국 등 세계 각지에서 각자의 관심사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민성’을 적극적으로 펼쳐낼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고, 인터퓨즈에게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모색하고 실험한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본팀은 이후 3차년도까지 프로젝트가 더욱 심화되고 확장되어, 한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그룹의 이주민들이 중

심이 되어 크고 작은 상호문화적 시공간들을 창출해낼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연계, 협력 활동을 펼칠 것이다.

